

‘룻’을 통한 여성가장 자립지원체계 모색

강기정(백석대 교수), 최광수(총신대 교수)

논문 초록

본 논문은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룻’을 통하여 오늘날 여성가장의 자립지원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룻의 삶속에는 4가지 측면의 지원체계가 있었다. 첫째는 신앙과 인애 그리고 자아존중감이라고 하는 개인적 측면이 있었다. 두 번째 지원체계는 페아(ha:Pe, 모퉁이)와 레케트(fq,l., 이삭줍기)라는 구약성경의 사상에 의하여 보아스의 밭에 일 할 수 있는 노동참여라는 경제적 측면의 지원이 있었다. 세 번째는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로부터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가족 공동체적 측면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구약성경의 고엘(m^g)제도라는 것을 통해 제도적 측면의 지원체계가 있었다. 이와 같이 여성가장 룻의 지원체계를 기초로 오늘날 여성가장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자립지원체계를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틀 안에서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측면에서 영성과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여성가장들의 내적인 임파워먼트를 고취한다. 또한 일할 수 있는 노동의욕과 기회를 제공하고 양육비나 공적 급여 등을 통한 경제적 지원체계를 제안하였다. 다음으로는 교회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지지 체계 지원을 모색하며, 마지막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여성가장 자립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여성가장, 자아존중감, 페아(ha:Pe, 모퉁이)와 레케트(fq,l., 이삭줍기), 멘토링, 고엘(m^g)제도, 기독교사회복지

<p>I. 서론</p> <p>II. 여성가장에 대한 이해</p> <p>III. 여성가장 룻의 자립지원체계</p> <p>IV. 여성가장 자립지원체계 모색</p> <p>V. 결론 및 제언</p>
--

I. 서론

2005년 여성가족부 출범이후 주요 관심 정책은 이미 서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빈곤 여성가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구 중 여성 가구주 비율의 변화는 1996년에 16.6%에서 2000년 18.5%로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동기간 8.3%에서 16.9%로 크게 증가하였다(석재은, 2004). 이는 경제 불황으로 인한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이혼과 별거 그리고 방임 등의 가족구조가 불안정하여 생긴 결과이다.

여성 가장은 다양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즉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양육의 문제와 역할과다에서 오는 긴장과 스트레스 등의 심리정서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한 문제 등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강기정, 2005; 김경희, 1998; 변화순 외, 2001; 송다영, 2003; 이윤석, 1995, 옥선화 외, 2001; 양인순, 2003; 한국여성개발원, 1999, 1998).

가족복지가 가족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지만, 아직까지 여성 가정이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데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여성가장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고찰하는데서 벗어나 보

다 통합적 복지정책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한편 오늘날과 같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사회에서도 여성가장의 자립생활이 열악한 상황인데 반해, 인구를 계수하는데 있어서도 그 숫자가 포함되지 않을 만큼 여성의 사회참여가 미미하였던 사사기 시대에 여성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출 22:24; 사 47:9; 시 109:9)은 사회적 소외계층으로의 전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룻¹⁾의 삶은 페아(ha;Pe, 모퉁이)와 레케트(fq,l., 이삭줍기) 사상²⁾의 실천사례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사사 시대의 궁핍하고 피폐한 사회 환경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인 여성가장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참여하고, 개인적인 삶도 자립하여 사회에 적응하는 여성가장의 기독교 사회 복지적 실천의 모델이 되고 있다.

구약성경 ‘룻기’의 시대적 상황은 경제적으로 매우 비극적이다. 룻기에서는 흉년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사실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흉년을 맞이한 한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남편을 잃은 두 여인의 고통과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룻이 보여준 삶의 대처 전략은, 오늘날 전체가구의 10% 이상의 실재적인 집단으로 등장한 여성가장이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처전략을 모색하는 있어, 실천 자립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시대적 배경과 사회 환경이 오늘날과는 상이하지만, 여성가장의 개인

1) 룻은 모압 여인으로 히브리인인 말론과 결혼한 여성. 룻이란 이름의 뜻은 ‘여자친구’ 또는 ‘우정’이다. 룻과 말론이 결혼한 년도는 주전 1100년이고 보아스와 재혼하여 오벳을 낳은 것은 주전 1160년경인 사사시대이다(성경인물 연구편찬위원회, 1997: 589).

2) 페아와 레케트는 레위기 19장9-10절에 근거한 신학적 사상이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레 19:10)“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곡식을 추후할 때에 한 톨도 남김없이 하지 말고 가난한 자와 가족을 위해 모퉁이의 이삭은 남겨두라는 말씀이다. 극빈자들을 위해 사회가 돌보아야 한다는 기독교 사회 복지적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문제와 요구들은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성가장 룻을 축복하신 모습 속에서 구약의 기독교사 회복지를 조명하여 오늘날 여성가장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구약성경 ‘룻기’에 등장하는 여성가장 룻의 삶을 통해 개인작가족 및 사회경제도적 자원을 분석하고, 이를 오늘날 여성가장의 삶에 적용하여 여성가장 자립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의 결과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사회복지 실천 모델과 방법을 구체화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여성가장에 대한 이해

‘여성가장’에 해당되는 단어를 우리나라 성경(개역 한글판 성경전서, 1956년 대한성서공회 발행)에서 찾으면 과부(寡婦)라는 단어이다. 과부라는 용어는 구약성경 원문에서 히브리어로 hn;m:lj'a'(알마나)라는 단어로 58회 쓰여 졌다. 그런데 한글 구약성경에서는 59번 등장한다. 욥기 31장 18절에서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과부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도하였노라’의 동사를 여성형으로 사용한 것을 한글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찾아 과부라는 단어를 직접 넣었기 때문이다. 신약성경 원문에서는 헬라어로 chvra(케라)라는 단어로 26번 쓰여 졌다. 그런데 한글 신약성경에서는 29번 등장한다. 이것은 원문 성경에서 대명사로 사용된 것을 모두 과부라는 직접적인 단어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결국 과부라는 단어는 신구약 원문성경에서는 총 84회 기록되었고, 한글성경에서는 총 88회 쓰여 졌다.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과부 즉 여성가장에 대하여 하나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과부란 사전적 의미로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사는 여자이다(브리태니커 사전 꾸러미-국어사전, 2000-2002). 그리고 과부란 남편 또는 성장한 자녀로부

터 경제적 지원이 없는 여자를 의미한다(이기문, 1980: 893). 즉 오늘날 여성가장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寡婦의 寡는 ‘적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집안에서 의지할 사람이 적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과부라는 용어는 독특한 신분을 지칭하고 있다. 그들은 과부들만이 입는 의복을 입었다(창 38:14, 19). 뿐만 아니라 장식을 하지 않고, 머리를 흘뜨리고 얼굴에 화장을 하지 않았다(이성호, 2000: 113). 성경속에서의 과부 즉 여성가장은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최고의 극빈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경은 과부의 옷을 담보로 잡지 말 것을 명하셨다(신 24:17). 왜냐하면 옷이 그 종류 하나 밖에 없기 때문이다(정지찬, 1979: 556). 뿐만 아니라 곡식과 포도를 추수할 때에 이들의 굶주림을 생각하여 일부를 남겨둘 것을 명하셨다.(신 24:19-21) 그래서 구약성경은 과부를 고아, 객, 그리고 나그네 등과 함께 열거하고 있다(신 10:13,14,29, 16:11,14, 24:17,19,20,21, 26:12,13, 27:19, 렘 22:3, 슥 7:10). 사회적으로 약자의 그룹에 속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성경은 과부 즉 여성가장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약 1:27).

기독교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볼 때 과부는 교회가 복지적으로 깊은 관심을 기울일 대상이다. 그래서 성경은 과부에 대하여 복지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하게 사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다(약 1:27). 뿐만 아니라 성경은 과부로 상징되는 여성가장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약속했다(출 22:22; 레 22:13; 신 10:18; 시 146:9; 사 1:17; 렘 7:6-7; 슥7:8; 딤후전 5:16; 약 1:27). 구약성경에서는 과부 즉 여성가장들에 대하여 행할 구체적인 말씀들을 명령형의 형태로 언급하였다. 신약성경에서는 그 율법들을 재확인 하면서 이웃사랑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여성가장을 자립하도록 지원해야할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家長)이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집안의 어른’ 혹은 ‘남편의 늙임말’이다. 일반적으로 가장은 남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가장’이라는 용어 앞에 굳이 ‘남성’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는다. 반면에 이혼이나 사별, 별거, 독신 등의 이유로 가족의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가장’이라는 용어로 지칭한다.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남성인 남편이 담당해야 하는 가장의 역할을 여성(혹은 부인)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비규범적 비정상적 의미를(옥선화 외, 2002)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의 역할은 남성이 담당하고 여성은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것이 규범적이라는 고정관념과 남녀차별적인 사회구조 등은 실질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장에게 더욱 심각한 경제적,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가중요인(이재립, 옥선화, 2001)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여성가장의 문제는 매우 복잡적이어서 사회복지의 일차적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조홍식 외, 2006: 210). 가장들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함에서 오는 경제적인 문제, 역할과다에서 오는 긴장과 스트레스 등과 같은 심리적이고도 정서적인 문제, 자녀양육의 문제, 여성가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으로 인한 낙인화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여성가장이 겪는 경제적 문제는 배우자의 상실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들 수 있으며, 안정되고 충분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직장 확보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불황의 시기에는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취약집단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저임금의 시간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육비나 의료비 등의 필수 생계비조차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들어나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김경희, 1998).

또한 여성가장의 정서적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고독, 우울, 절망감, 소외감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여성가장은 가사와 자녀양육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부양자로서의 역할까지 병행하게 됨으로써 역할과다로 인한 스트레스와 긴장상태를 경험하게 되며 남편과의 이별로 인한 상실감과

소외감은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여 무기력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과잉행동을 하거나 타인에 대한 불분명한 분노감이나 적대감을 표출하기도 한다(김인숙 외, 2002). Burden(1980)에 의하면 특별히 저소득층 여성가장은 우울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자녀양육의 문제 있어서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에 대한 의논 상대의 부재와 경제활동으로 인한 자녀와의 대화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여성가장의 자녀들은 부(父)의 결손으로 인한 감독권 및 동일시 대상의 상실 그리고 사회적 통념과 편견에서 오는 압박감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홍식 외, 2003). 특별히 빈곤 여성가장의 경우, 자녀에 대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녀를 한편으로는 ‘의지’나 ‘기둥’, ‘희망’, ‘위로’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귀찮은 존재,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옥선화·성미애, 2004)으로 나타났다. Amato와 Keith(1991)에 의하면 여성가장 세대의 자녀들이 성역할 발달, 일반적인 성격이나 정서발달 그리고 인지능력 발달이 일반 가정의 자녀에 비해 느리고 비행이나 자살과 같은 문제행동을 하는 자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여성가장 룻의 자립지원체계

1. 개인적 측면 : 신앙(信仰)과 인애(仁愛) 그리고 자아존중감(自我尊重感)

룻기의 등장하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헬에서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다.³⁾ 유다 베들

3) 모압의 조상은 구약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룻의 큰 딸과 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모압과 이스라엘은 친척관계라 할 수 있다. 미루어 짐

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1:1,2). 그런데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 모두는 모압 여자와 결혼하였다. 오르바와 룻이란 이방여인들이다. 세월이 흘러 10여년이 되었을 때, 두 아들 말론과 기룬이 죽게 되었다. 결국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이 남게 되었다(1:3-5).

가부장적인 시대에서 늙은 여인이 남편과 아들 없이 두 며느리와 함께 산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최악의 조건에서 삶을 사는 것이다. 아내에서 미망인으로, 어머니에서 아무도 어머니라고 불러줄 자 없는 무자식 어머니로 바뀌어 버린 이 여인은 모든 정체성을 빼앗겨 버렸다(Trible, 1978). “...여호와와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1:13). 결국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의 죽음과 가정생활의 박탈로 인해 깊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이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때 룻은 장자의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인애와 책임감으로 신앙인의 태도를 취한다. 룻의 이러한 태도는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나오미에게 사회적 지지와 지원체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장으로 룻의 신앙과 인애 그리고 책임감은 총체적인 구속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오늘날 여성가장 자립지원체제를 모색하는데 모델이 된다.

여성가장 룻의 신앙(信仰)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16),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17). 룻이 시모를 따라가겠다는 결

작건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기업을 침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모압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을 금하셨다. 비록 모압의 이스라엘에 대하여 잘못을 하였을지라도 이러한 명령은 지속되었다. 그 결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왕의대로’로 통과할 것을 모압에게 거절당했지만 전쟁을 치르지 않고 모압을 우회하여 가나안에 들어갔다. 모압과의 이러한 관계는 사사 시대에도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 특별한 분쟁이 벌어지지 않는 한 두 민족 간에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나오미 가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 모압 땅에 정착하고 그 자녀들이 결혼하며 살았던 배경에는 이러한 역사적 상황이 있었다(성경인물연구편찬위원회, 1997: 586).

심한 이유가 드러난 대목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란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세상의 것들보다 신앙을 선택한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로 룻은 인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3:10). 룻이 처음 베푼 인애는 자기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버리고 시모를 모시기 위해 베들레헴에 왔던 것이며, 나중에 베푼 인애는 시모를 잘 공경할 뿐 아니라 젊은 과부로서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이다(G. Gerleman). 비슷한 의미로서, ‘처음 인애’는 죽은 남편에게 베푼 룻의 사랑이며, ‘나중 인애’는 근족과 결혼함으로써 그 남편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남기고자 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Keil, Michaelis). 한편, 보아스가 ‘인애’라는 말로 그녀의 현숙함을 표현했는데, 이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인애(仁愛)’란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세드’(deseje)는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며,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우정이나 사랑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룻의 행위가 진실된 사랑에 근거했음을 칭찬했던 것이다.

결국, 여성가장 룻의 신앙과 인애로 보아스에게서 아들을 낳아 시모 나오미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다. 룻이 아들을 낳았음에도, 그 이웃 여인들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고 외친다(4:17). 그리고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찬송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무를 자를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4:14-15)고 노래하였다.

마지막으로 룻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동서 오르바와는 달리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인애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유에서일까?

오늘날 여성 가장의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고독, 우울, 절망감, 소외감 등으로 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들은 심리 정서적 문제로 인하여 가족이나 사회관계에서도 적응의 문제를 안고 있다.

대체로 여성가장은 이혼이나 사별, 별거, 유기 등의 이유로 인해 배우자를 상실한 것에 대하여 일종의 자책감, 죄의식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절망감, 책임감, 슬픈 감정, 분노, 그리고 미움 등의 감정을 갖게 된다(신경혜, 2001: 23). 정서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성가장은 스스로의 삶에 대해 적극적이고 자기 발전적인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매사에 소극적이며 위축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아존중감이다.

룻은 자아존중감이 확립된 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감을 잃지 않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자기 조절 능력을 발휘하며 어려운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가는 능력과 깊이 관련 있다(성은현, 2005: 224). 룻은 남편을 잃고 나이든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위기를 회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룻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함께 살아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또한 상황에 맞추어 잘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룻의 모습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가장이란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만일 자아존중감이 없었다면 룻은 시어머니를 좇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어려움에 좌절했을 것이다. 그러나 룻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여성가장들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한 자립지원서비스 가운데 하나이다.

2. 경제적 측면 : 룻의 노동 참여

룻과 나오미가 보리 추수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1:22)는 것은 삶 가운

데 함께하시고 침묵 속에서 그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그들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룻이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룻 2:3)는 것은 성경의 표현 그대로 ‘우연’ 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배후에서 이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필연’ 적 섭리가 개입되었음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룻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룻의 노동에 대한 자발성과 사사 시대의 이삭줍기라는 경제활동은 여성 가장이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된다. 하나님의 분명한 권고(레 19:9, 23:22)로 제시된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자에 대한 일종의 관습적 차원의 사회적 배려로 평가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어떤 제도적 대책보다 가난한 여성가장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고마운 사회적 자립지원체계였다.

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종교개혁가 John Calvin은 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는 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며 그 의미를 부여했다. 이런 의미부여는 하나님이 인간을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인간이 노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노동 그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동을 통해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신교는 노동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라고 믿는다. 심지어 루터는 “인간은 타락 이전에도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고 하였다(김승욱·유해신, 2002: 29-30). 룻은 적극적으로 노동에 참여했다.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성경에는 “...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살전 4:11), 또한 “예수에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5:17), 그리고 “...누구든지 일하기 싫

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살후 3:10)고 기록되어 있다. 룻은 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일터에 나간 것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먼저 나서서 일을 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룻 2:2). 신앙인이 노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노동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이며 노동은 신성하다는 것을 깨닫고 노동에 긍지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박창환, 1977: 30).

오늘날 여성가장들에게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여성가장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1998)에 따르면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이며 가정의 소득이 감소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60%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되었다(Mussen, P. H., Conger, J. J., Kagan, J. & Huston, A. E., 1984). 경제적인 문제는 여성가장 가족 전체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으며, 안정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가족해체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므로 여성가장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아울러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직업의식 함양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3. 가족 공동체적 측면 : 나오미의 멘토⁴⁾ 역할

4) 멘토(Mentor)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머(Homer)’의 작품인 대서사시 ‘오딧세이(The Odyssey)’에서 유래했다. 멘토란 라는 단어는 오딧세이에 등장하는 주인공 ‘오디세우스’의 친구이름이다. B.C. 1200년 경에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와 10년간의 전쟁을 위해 떠나면서 자신이 없는 동안 자신의 왕자 텔리마코스(Telemachus)를 그의 친구인 멘토에게 부탁한다. 즉 왕자를 도와 그의 왕국을 잘 보호하고 왕자를 장차 앞으로의 통치자로서 지도해 줄 것을 부탁한다. 이 후 멘토는 왕자를 돕고 그를 잘 지도하여 통치자로서 필요한 지식과 충고를 하였다(조성중, 2001: 218). 이런 이야기를 근거로 멘토는 현명한 조언자 또는 스승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멘토에게 도움

나오미는 모압에서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의 영적 멘토의 역할을 하였다.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기 시작하였고 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세워졌다. 이것은 나오미가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가족 공동체적 체계 속에서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로 인하여 룻은 일차적으로 나오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녀에게 헌신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그래서 룻은 순수한 마음으로 곤고한 처지에 빠진 나오미에게 끝까지 충성하기로 다짐한 것이다. 이러한 헌신의 삶이 있었기에 룻은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이 된 것이다(룻 2-4장, 룻 1: 6-14).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⁵⁾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결정적 동기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기 때문이다. 룻기는 이 상황을 나오미가 ‘일어났다’⁶⁾고 표현한다(임세일, 2000: 47-50).

룻은 이방 여인들 중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에 룻은 커다란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큰 구속의 대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는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감당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가장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가족 공동체적 측면의 지원체계로서 여성가장의 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멘토링은 조직에 참여할 때 그 목표나 일체감 등 조직적응력에 큰 도움이 되고, 만족도에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졌다(김우식·엄창용, 2004:

을 받으며 다양한 지도를 받는 사람을 멘티(Mentee)라고 한다. 이러한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멘토링(Mentoring)이라고 한다. 멘토링에 대한 관심은 쉬히(Sheehy, 1976)의 「삶의 여정」과 레빈슨(Levinson, 1978)의 「인생의 계절」, 이 두 책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부터이다(Mobley et al., 1994: 80).

5)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룻 1:6).

6) “...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룻1:6)

106).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도 조직 만족도, 조직 몰입도, 조신 헌신도에 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졌다(조성중, 2001: 231).

예수 그리스도는 12제자의 멘토로서 역할을 감당했다. 특별히 예수님의 멘토링은 오늘날 행하는 멘토링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 즉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은 것이다. 흔히 제자훈련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 내에서도 멘토링이란 용어로 제자훈련의 차원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멘토링이 교회생활에 적응하는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공동체 나아가 교회 공동체가 멘토가 되어 여성가장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 제공될 필요가 있다.

4. 제도적 측면 : 고엘(גּוֹאֵל)제도

사사 시대는 왕정정치가 안정되지 않은 시대적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이 시대의 고엘(גּוֹאֵל)제도를 오늘날의 가족복지 정책에 비교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당시의 여성가장을 위한 최대의 복지제도로 볼 수 있다.

히브리어 ‘고엘(גּוֹאֵל)’은 ‘되찾다’, ‘구속하다’, ‘무르다’, ‘친족으로서 행동하다’ 등의 의미로써 이스라엘의 고엘(גּוֹאֵל) 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며,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생겨났으며, 그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고엘(גּוֹאֵ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했다. ① 혈연적으로 근족(近族)이어야 한다(신 25:5-7).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의무와 권리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척이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4:3-4). ② 본인이 자원해야 한다(3:13). 그 의무와 권리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가져야 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었다. ③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룻2:1). 기업을 무르고 싶어도 경제적인 상황이 허락되지 않으면 원해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4:5-6; 차용철(2004), 상식정보, <http://www.opendoor.or.kr/way-board>).

이 제도는 어찌 보면 빈곤 여성가장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복지적 대책 마련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기업을 무를 친족이 자신의 손해를 우려하여 거부하거나 혹은 무르고 싶어도 무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명목상의 제도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룻의 경우에는 비록 보아스의 인애에 힘입어 자신의 텅 비고 힘겨운 여성가장의 삶에서 탈출하지만, 모든 여성가장이 이러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나름대로의 의의를 내포한 제도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고엘(גּוֹאֵל) 제도에 의한 기업의 무름(레 25:25)과 관련된 것이었다. 고엘(גּוֹאֵל) 제도는 가까운 친족으로 하여금 어려움 당한 자를 구해줄 의무와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한 기독교 사회복지 제도 중 하나이다. 이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자니라’ (딤후 5:8)는 말씀에도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가족과 친족에 대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서로 돌아보는 삶이 되도록 권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도 불구하고 룻기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의 친족 중 가장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무를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4:6)고 말함으로써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 고통 중에 있는 친족이 곁에 있더라도 자신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을 돕고 싶지 않다는 의증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는 참으로 눈앞의 이익에 연연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결정적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어리석은 인간의 선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에 반해 온 인류의 속량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로서의 보아스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의 인애는 생각지 못한 축복의 결과로 나타나 오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됨을 보여준다. 이렇게 기업 무를자와 보아스의 선택에 있어서의 극명한 대조를 통하여 뜻기는 모든 인생에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놓여져 있으며 그 하나는 축복과 은혜의 길이요, 또 다른 하나는 비록 눈앞에서는 이익을 얻는 것 같으나 멸망과 최종적 손해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사시대의 고엘제도를 기초로 여성가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III. 여성가장 자립지원체계 모색

위에서 밝힌 뜻에 대한 지원체계를 토대로 오늘날 여성가장을 위한 자립지원체계를 모색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독교실천모형⁷⁾을 근거로 [그림 1]의 여성가장 자립지원체계 모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적 지원체계

한 개인의 신앙은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한다.⁸⁾ 신앙은 인애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 인애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사랑을 의미한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우정이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이다(마 22: 37-40). 이것은 바로 신앙의 요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애는 신앙을 통해 성장한다고 말할 수 있다.

7) 강기정(2004)은 기독교 세계관의 창조타락·구속 틀에서 기독교복지의 학문적 정체성을 모색하여, 창조의 기독교복지의 목적과 가치, 타락의 기독교 복지의 필요성, 구속의 기독교복지의 정의와 실천을 도출하였다.

8) 구약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인생은 매우 험난하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극복하여 애급의 총리가 되었다.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존엄성, 생명 존중(창1:27, 28)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창조	·에덴복지 ·창조세계의 질서와 관계 ·기독교복지 가치 - 의존성, 존엄, 평등, 자유	·건강한·행복한 가족 ·모든 인간(여성가장포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
↓			
타락	·죄로 인한 타락(창 3:6; 6:5,6) ·살인(창4:8,23), 다툼(창13:8), 전쟁(창14:2), 성적 타락(창19:5), 미움(창27:41), 속임(창 29:23)...	·기독교복지의 필요성 대두 ·사회문제(자연환경포함) 발생 ↓ ·생명 경시 현상과 함께 심화된 빈부격차, 악물오남용, 환경파괴, 낙태, 가정 폭력, 성폭력 등의 사회 문제에 대한 기독교 복지의 적극적 개입필요 ·구속과 치유의 역사	·개인적측면 : 심리정서적 영적측면의 황폐화 ·경제적측면 : 가족의 재정적 위기, 빈곤화 현상 ·가족공동체적측면 : 자녀부적응및 공동체적 무관심 ·제도적측면 : 국가정책적 측면에서의 소외, 잔여적 복지제도
↓			
구속	·기독교 복지실천의 모델 ·그리스도의 구속과 치유(롬3:23; 고후5:17)	·기독교복지의 실천 : 정책, 임상 실천 ·전인적구원(영,육체,정신) -새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생명	·기독교복지의 실천 ·개인적측면 : 신앙,인애, 자존감 향상프로그램 ·경제적측면 : 직업의식 향상, 경제참여기회 확대 ·가족관계측면 : 교회를 통한 멘토링프로그램 ·제도적측면 : 정책적고려

[그림 1] 여성가장을 위한 기독교사회복지 실천모형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여성가장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부족했다. 오히려 여성 가장들에 대한 암묵적인 낙인화 현상으로 인하여 교회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환경이다. 그런데 여성가장에게 신앙은 가장 근본적인 힘의 바탕을 이루게 한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사회복지에서는 신앙과 인애 부분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신앙과 인애라는 개인적 지원체계를 돕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한다. 여성가장들의 신앙과 인애를 고취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신앙인에게는 영성이 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이다(행 1:8). 영성에 대하여 캔다와 펄만(Canda and Furman, 1999)은 인간이 자신의 삶 등에 대한 의미감, 삶 등의 목적, 자기 자신 및 남들과 도덕적으로 성숙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영성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 개념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화시키고자 한다. 즉 영성지향도로 설명하고자 한다. 영성 지향도란 영성에 대한 헌신, 몰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성 지향도는 자아존중감, 개인적 평화감, 위안감, 생활만족도 등을 증진시켜 준다(Osca, 1982; Hall and Hall, 1997; Koenig and Cohen, 2001; Tan, 2003; Sperry, 2003). 영적 지향도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Popkess-Vawter, Yoder, and Gajewski, 2005). 어머니의 종교성의 정도가 클수록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Carothers, Borkowski, Lefever, and Whitman, 2005). 결국 여성가장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복지 실천의 영성 지향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관련이 있으며, 자신감의 정도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에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게 되며 자신의 약점도 스스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으나, 낮은 경우에는, 부정적이고 소심하며 열등감과 함께 방어적이고 회피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스스로에 대해 자아존중감이 높

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생활을 가치 있고 보람되다고 생각하면서 활동하기 때문에 진취적이고 발전적이며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을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확대하고 경멸함으로써 불안하고 소극적인 생활태도를 갖게 된다(Rosenberg M. & Leonard I., 1978).

결국 룻은 여성가장이라는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정의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삶의 대처 전략으로 삼고 있다(옥선화·성미애, 2004). 따라서 여성가장들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가치감이나 긍정적 평가를 확대시키고 자신의 현실적 상황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VanderZee, Buunk & Sanderman, 1997; Sheeran et al., 1995).

여성가장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 그리고 집단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를 통해 자존감향상을 위한 자조집단을 지원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경제적 지원체계

여성가장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 주요 생계담당자였던 남편의 부재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대부분 노동시장에서 위계 구조적으로 하위직에서 일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김경애, 2003: 56). 여성가장의 주거형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월세였고 그 다음이 전세로 나타났다(김규수, 1992; 한국여성개발원, 2001).

여성가장 룻의 경우 자립을 위해서 경제적 지원이 있었다. 따라서 교회는 여성가장들을 위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력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경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같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활동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갖는 것은 성경적이다. 그리고 모든 활동에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경제적 지원체계는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와 노력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란 사실을 일깨우는 교육 과정 프로그램이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여성가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미숙 외, 2005: 257). 첫째는 자립과 자활 그리고 고용지원이다. 교회가 자립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직접 실시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자립 직업교육 훈련을 위한 지역사회의 기관과의 연관성을 갖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일정의 교육훈련 수당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직업훈련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조직적인 취업알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취업 후에도 사후관리를 시행하여 지속성을 유지토록 한다.

둘째는 양육비 및 학비보조의 확대이다.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제공해 주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해 준다. 교회에서도 여성가장들의 자녀양육비를 마련하여 재원하고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회 내 장학금 제도와 연계시킬 수 있다. 셋째는 공공부조를 통한 지원체계 마련이다. 일차적으로 교회가 여성가장들이 실제로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사역이 필요하다. 국가와는 별도로 교회가 공공 부조적 성격의 복지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차 상위 계층 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생계유지 자체가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긴급 생계비 지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건강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교회 내에 의료업을 하는 성도들과 결연관계를 맺게 하여 무료건강검진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 부서중 복지위원회 내에 여성가장 지원을 위한 특별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여성가장지원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각 여전도회 회장을 위촉하여 실행하고 각 여전도회 내에도 지원부를 마련하면 유기적인 연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3. 가족 공동체적 지원체계

교회는 공동체로서 존재한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작은 단위는 가족이다. 따라서 가족은 공동체의 특성을 강하게 갖고 있다. 공동체의 특성은 하나 됨이다. 유기적으로 하나 됨을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기간 중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셨다.⁹⁾ 또한 성경은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하고 있다.¹⁰⁾ 그러므로 교회는 가족 공동체의 특성을 매우 강조하는 조직체이다.

가족 공동체의 직분 중 교사의 직분이 있다. 교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직이다. 교사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은 멘토로서의 역할이다. 멘토링은 하나님 허락하신 거룩한 사역이다. 그리고 교회는 가족 공동체 지원체계로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멘토의 역할은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나오미의 영적 멘토의 역할을 오늘날 교회가 담당할 수 있다. 교회내에 ‘여성가장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교회의 기존 성도 가운데 여성가장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여성가장으로서 교회에 처음 등록하는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등록초기부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여성가장 자립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멘토링을 통하여 멘토와 접촉하는 횟수가 교회 공동체에 적응하는데 영향을 준다(조성중, 2001: 41). 교회 공동체의 특성상 멘토와 접촉할 수 있는 빈도는 매우 높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여성가장 지

9) 요한복음 17: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10) 고린도전서 12: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원체계로서 매우 유익하리라 본다.

나아가 지역 사회 내에 있는 여성가장들을 대상으로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사회를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이와같이 여성가장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이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Karm(1988: 39-74)은 멘토 관계를 시작단계와 발전단계와 분리단계 그리고 재정립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가장 활발한 멘토 관계가 형성 되는 것은 2년에서 5년 사이라고 밝혔다.

이것을 여성가장 자립지원체계를 위한 멘토링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시작단계의 기간은 약 1년 정도이다. 이 단계에서 여성가장은 멘토링을 통해 자신의 고민들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다. 그리고 여성가장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큰 기대감을 채워주는 기간이다. 발전 단계는 약 2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데 긴밀한 멘토와 멘티 관계를 형성하고 일반적인 지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시킨다. 여성가장으로서 멘토링에 대하여 때로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시킨다. 이때 교회 공동체를 소개하여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교회로서는 매우 유익하리라 여겨진다. 그리고 분리단계는 6년째 되는 기간을 말하는데, 멘티를 독립시키는 기간이다. 마지막으로 재정립단계는 새로운 단계로 전환시키는 단계이다. 독립된 존재로 멘토와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여성가장을 멘티로 받아 그들을 멘토로서 돕는 역할을 제안한다. 멘티에서 멘토로 전환되는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교회가 여성가장의 지원체계로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고 인적자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되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회의 노력은 여성가장들에게는 매우 큰 힘이 되는 지원체계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본다.

4. 제도적 지원체계

제도적 지원체계는 국가별로 전반적 기초, 가족정책의 지향성, 모자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방향에 의하여 결정된다(송다영, 2003: 306). 미국의 경우 전형적으로 잔여주의적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 기초하여 가족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상당히 제한적인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하고 있다. 반면 보편주의 정책 기초 위에 개별 개인부양자 모델에 기초하여 가족정책을 전개해 가고 있는 스웨덴은 모자가족에 대해서도 보다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의 결과 미국과 스웨덴 모자가족의 빈곤율은 그 절대적인 크기에서 뿐만 아니라 자녀를 데리고 사는 일반가구와 비교에서도 상당히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은 여성의 높은 고용률과 함께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유급휴가, 유연한 근로시간, 풍부한 아동 및 노인보호서비스 등 여성 친화적(women-friendly) 사회정책들이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은 가정 내에서의 보살핌노동시간을 연금기여기간으로 간주해주는 연금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거나(독일, 일본 등), 보살핌노동에 대한 사회 보상제도(carers' allowance 등)를 도입하거나(북유럽, 독일, 영국, 아일랜드 등) 하는 등의 무급의 가족보살핌 노동(unpaid work)을 사회적 현금보상으로 유급 노동(paid work)으로 전환시키는 정책방안도 궁극적으로 빈곤의 성적격차를 해소하고 빈곤의 여성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이다(석재은, 2004).

1980년대 이래 줄곧 모자가구의 빈곤이 증가한 이유는 성차별적 노동시장, IMF와 같은 경제적 위기와 이로 인한 가족구조의 불안정 증가, 기본적으로 전일제 노동자를 중심으로 폐재된 사회보험제도, 가족 내에서 보살핌을 담당하고 있는 모자가구주들을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한 사회복지정책의 실패 등에서 기인한다(김영란, 1997; Amott, 1988; 송다영, 2003).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가장을 복지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이들을 변화와 독립이 가능한 주체적인 존재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주로 보육 및 양육비 보조, 등록금 지원, 모자보호시설 운영 등 경제적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모자가족의 이동을 위한 양육 및 교육수당을 현실화하도록 해야 한다. 모자가족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장, 단기적 의료보장제도나 주거안정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도기적으로 현행 국민기초생활법 아래 이혼, 사별, 별거 직후 모자가족에게 긴급생계급여나 긴급의료급여 등과 같은 급여를 제공하는 조항의 신설도 고려할 수 있다. 18세 미만의 아동을 데리고 살고 있는 모자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다 포괄적인 모자복지법이 새로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자가족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성인지적(gender-sensitive) 고려가 전면적으로 있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여성가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 방안으로는 심리적 지원, 자녀양육 지원, 법제도 개선, 주거지원, 이혼예방 등을 제시할 수 있다(김미숙 외, 2005: 254). 심리적 지원을 위해 교회 내에 자조집단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교회 내 상담기구를 활성화시킨다.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심리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자녀양육 지원으로는 교회나 노회에서 여성가장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급을 법규에 마련하여 제도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회 차원에서 자녀양육 및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부모대상 상담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법제도 개선으로는 교단차원에서 숙련기간이나 상담의무화 프로그램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거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노회 차원의 매입임대를 통한 주택 서비스 지원을 마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거안정 지원비 보조나 전세자금 대여를 위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혼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인생설계교육과 결혼예비학교 그리고 가족생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빈곤 여성가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정정책 차원의 서비스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 가구의 10% 이상의 실재적 집단인 여성가장의 욕구충족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데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구약성경 ‘룻기’에 등장하는 여성가장 ‘룻’을 통해 오늘날 여성가장들을 위한 자립지원체계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가장 룻의 삶속에 있었던 4가지 측면의 지원체계를 분석하였다. 즉 신앙과 인애 그리고 자아존중감이라고 하는 개인적 측면과 페아(ha;Pe, 모퉁이)와 레케트(fq,l., 이삭줍기)라는 구약성경의 사상에 의하여 보아스의 밭에 일 할 수 있는 노동참여라는 경제적 측면과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로부터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가족 공동체적 측면 그리고 구약성경의 고엘(고엘) 제도를 통한 제도적 측면의 지원을 밝혔다.

본 연구는 오늘날 여성가장을 돕는 자립지원체계의 원리를 룻을 통하여 성경적 근거를 둔 여성가장지원체계의 모델을 제안하였다. 즉 개인적 측면에서 신앙과 인애 그리고 자아 존중감을 향상 시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여성가장들의 내적인 임파워먼트를 고취한다. 두 번째로는 여성가장들을 위한 경제적 측면에서 지원체계를 형성한다.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하고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양육비나 학비보조, 공고부조 확대,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 및 노후생활 보장 등을 통해 경제적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다음으로 가족 공동체적 측면에서 교회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국가 정책적인 면에서 지원체계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오늘날 여성가장에 대한 기독교사회복지적인 접근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구약의 인물인 룻을 통해 여성가장을 위한 자립지원체계를 찾는

것은 성경 속에서 그 접근 방법을 모색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그리고 구약성경의 인물인 룻을 통해 여성가장 자립지원체제의 원리를 찾은 것은 룻이 여성가장으로서 좋은 역할모델이 된다는 면에서 그 장점이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여성가장의 상황은 옛날과 같이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룻이란 한 여성의 삶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여성가장의 상황에 모두 적용하는 원리를 찾는다는 것은 그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룻의 삶은 텅 비어지는 비극적 죽음의 사건으로 시작해서 충족과 생명의 기쁨으로 노래하는 탄생의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 (롬 8:18)는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 룻이라는 모압의 한 보잘 것 없는 이방여인을 등장시켜 그 여인의 인생경로를 통하여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을 보여주면서 여성가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한다. 룻은 풍족과 비어짐이 교차하는 굴절된 삶을 지나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적 결단을 통하여 그 비어진 공허의 삶에서 완전한 풍족의 삶으로의 회복을 경험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가된다. 여성가장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 편 본 연구는 룻이란 한 여성의 삶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 속에 있는 여성가장의 상황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찾는다는 것,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 중 룻을 통해서만 여성가장의 자립 모델을 선정한 점은 한계가 있다. 비록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구약의 인물 룻을 통해 여성가장을 위한 자립지원체제를 찾은 것은 오늘날 여성가장에 대한 교회의 사역적 접근의 방향성을 성경적 맥락 속에서 찾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여성가장의 지원체제가 어떻게 실천되었는지를 나타냈다. 그리고 교회가 여성가장의 지원체제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독교사회복지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세계관의 창조, 타락, 구속의 틀에서 ‘구속’의 기독교복지 실천을 여성가장의 자립 지원체제를 모색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여성가장을 위한 지원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한다. 기독교사회복지적인 접근을 통해서 여성가장들의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기정 (2004),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 복지모형 개발,” 『백석저널』, 5, 43-62.
- 강기정 (2005), “여성 한부모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3(9), 15-26.
- 김미숙 외 (2005),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경애 (2003), “현대가족 변화와 새로운 가족정책 방향,” 『동덕 여성연구』, 8, 45-69.
- 김경희 (1998), “저소득 실직여성가장의 생활, 의식, 욕구실태 보고,” 『저소득 실직여성가장의 여성복지 강화방안』, 한국여성단체연합, 15-16.
- 김규수 (1992), “모자가정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사회복지연구』, 20, 75-92.
- 김승옥유혜신 (2002), “노동권의 제 유형과 성경적 노동관,” 『신앙과 학문』 7(1), 9-37.
- 김영란 (1997),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 31, 1-28.
- 김우식·엄창용 (2004), “공직 내 멘토 관계와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사회과학논총』 26(1), 103-118.
- 김인숙 (2002), “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임파워먼트의 의미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9, 34-61.
- 변화순 외 (2001),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

원

- 브리태니커 사전 꾸러미 - 국어사전 COPYRIGHT(C) (2000-2002),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 서영숙, 황은숙 (2004), 『한부모가정과 이혼 이해교육』, 서울: 양서원
- 성경인물연구편찬위원회(1997), 『성경인물연구』 10(3), 경기도 부천시: 램난트
- 성미애옥선화 (2004), “여성퇴직자의 퇴직 후 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가족과 문화』, 16(2), 57-94.
- 성은현 (2005), “자아 존중감,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인성의 관계,” 『이동화회지』, 26(1), 217-228.
- 석재은 (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2), 167-194.
- 송다영 (2003), “사회적 배제집단으로서의 저소득 모자가족과 통합적 복지대책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4, 295-319.
- 송호근.(2002), “빈곤계층의 노동시장구조와 정책,” 『한국사회학』 36, 23-50.
- 양인순 (2003), 모자복지서비스 실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서울.
- 옥선화 외 (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실태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9(2), 2-6.
- 옥선화 외 (2002), “빈곤 여성가장의 대처 전략에 관한 질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6), 223-244.
- 이기문 (1980), 『기독교백과사전』, 1(1), 서울: 기독교문사.
- 이윤석 (1995), 도시지역 여성가장가구의 생활실태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이성호 (2000), 『성경대사전』, 서울: 성서연구원
- 이재람옥선화 (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156, 49-63.
- 임세일 (2000), 『룻의 해피엔딩』, 서울: 양무리서원
- 정인찬 (1979), 『성서대백과사전 제1권』, 서울: 기독교지혜사.
- 조흥식 (2006),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 한국여성개발원 (1998).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방안 연구. 서울: 동기관
- (1999).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실태 분석. 서울: 동기관
- (2001). 여성 한부모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서울: 동기관

- Canda, Edward R., & Furman, Leola Dyrud, (1999), *Spiritual diversity in social work practice: the heart of helping*, New York Free Pree.
- Mussen, P. H., Conger, J. J., Kagan, J. & Huston, A. E. (198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 Kram, Kathy E., (1988), *Mentoring at Work: Development Relationship Organizational Life*, Lanham, Md. :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Sperry, Len. (2003), *Sex, priestly ministry, and Church*,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 Trible, Phyllis. (1978), *God and the rhetoric of sexualit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 Popkess-Vawter, S. Yoder, E. Gajewski, B. (2005), "*Clinical nursing research*," Sage Publications Inc, 14(2), 158-174.

- 논문접수 : 2006년 10월 30일
- 수정본 접수 : 2006년 12월 8일
- 게재승인 : 2006년 12월 16일

ABSTRACT

**A study of self-support system for matriarch
through Ruth**

Ki Jung Kang(Baeckseok University)
Kwang Su Choi(Cho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grope for the system of helping the woman matriarch to be dependent by studying the story of Ruth who is the matriarch in the Bible. We could find four kinds of aspect of supporting system in the life of Ruth. The first one is the personal aspect of faith, perseverance and self-esteem. The second supporting system is economic aspect of ha;Pe(corner) and fq,l,(gleaning) which is participating working ground (in the field of Boaz). The third one is family-supporting system of mentoring of her mother-in-law, Naomi. And the last one is institutional system of ~~is~~(go'el) which is described in the Book of The Old Testament.

So it is helpful for us to establish helping system of today's woman matriarch to be independent by studying Luth's life and the environmental condition. In the first place, we can empower woman matriarch by program which could improve self-esteem of them. And in the second place, we can support their economic situation by give opportunity and will to work and the practical help of fostering expenses

and public assistance. Next, I described the montoring program. And the Last, I suggest some aspect of policy to establish supporting system.

**Key words : woman matriatch, self-esteem,
ha;Pe(corner) and fq,l,(gleaning), The
Christian Social Welfare**